"자두맛도 나고, 살구맛도 나네"

진도군, 재배 3년만에 '플럼코트' 첫 출하

대파 대체작물로 권장…새콤달콤한 맛 일품

대파 주산지인 진도군에서 대체 작목으로 농가에 보급한 '플럼코트'의 첫 수확이 시작됐다.

16일 진도군에 따르면 플럼코트 재배를 시작한 진도 의신면 박종용씨는 3년 만인 올해부터 상품성을 갖춘 플럼코트를 첫 출하했다.

플럼코트는 새콤달콤한 맛으로 자두와 살구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신품종 과일이다.

첫 수확은 1800평에서 약 8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1㎏에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박씨는 "재배는 어렵지 않다"면서 "비교적 열악한 재배 환경에서도 나무가 자라며, 자두나 살구에 비해 병충해에 강하다"고 말했다.

'플럼코트'는 자두를 의미하는 플럼(Plum)과 살구를 뜻하는 애프리코트(Apricot)의 합성어로, 살구와 자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품종이다.

물 빠짐이 좋고 모래 성분이 많은 땅에서 재배되는 진도산 플럼코트는 병해충에 강하고 개당 80~100g으로 크며, 당도 또한 14~17브릭스로 높다.

특히 살구의 달콤함과 자두의 향기로운 과즙이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낸다.

또 비타민 A와 C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물질도 다른 과일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두와 살구의 장점을 살린 플럼코트는 농가의 새로운 틈새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어 앞으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감태 시험양식으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대

신지 · 청산 · 금당면 3개 해역에 감태 양식 시설 설치

기능성 물질 원료 공급 및 전복 대체 먹이 활용 가능

해양바이오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해조류의 기능성 물질 추출을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마련과 해조류의 유용한 성분을 활용하기 위해 기능성 해조류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가 유망 양식 품종 중 하나인 감태이다.

감태는 갈조류의 해조로서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일부 양식 어가에서는 전복 먹이용으로 공급하기도 하며, 기능성 물질인 폴리페놀의 추출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4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완도지원과 업무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신지면과 청산면, 금당면 3개 해역에 감태 양식 시설을 설치했다.

앞으로 2021년까지 2년간 완도 해역의 감태 대량 양식 가능성 조사와 타 해조류와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감태 양식 보급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태 대량 양식이 가능할 경우 고수온기 전복 먹이용 미역, 다시마 소실기에 대체 먹이로 활용이 가능하며, 의약품, 기능성 물질의 원료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게 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감태를 시작으로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에 대비하여 큰잎모자반, 넓패 등 다양한 해조류 시험 양식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침체된 해조류 양식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망 양식 품종을 육성하여 양식 어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내 해조류 연간 생산량은 180만 톤이며 이중 70%는 완도에서 생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해조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어 식용 분야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의약, 화학, 바이오에너지 산업 등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완도=김광수 기자

'두 바퀴로 그린자전거 여행' 함께해요

강진군, 올해 11월 말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가우도 출렁다리까지 해안길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는 '두 바퀴로 그린자전거 여행'이 재개됐다. 강진군체육회는 지난 1일부터 '두 바퀴로 그린자전거 여행'의 운영을 시작했다.

군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도록 일반용, 여성용, 2인용, 주니어용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코스는 힐링코스와 문화코스, 건강코스 총 세 가지로 나뉜다.

힐링코스는 철새도래지를 반환점으로 하는 1시간 코스이다. 문화코스는 다산박물관을 반환점으로 하는 3시간 코스, 건강코스는 가우도 출렁다리를 들렀다 돌아오는 4시간 코스이다. 11월 말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인용 1,000원, 2인용 2,000원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해 일상의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용에 앞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매일 자전거 소독을 실시하고 이용객의 방명록 작성, 발열 체크 및 손 소독과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영암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사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 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불법 중개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종사자 또는 방문자 등을 매개로 코로나19 발생사례가 있어 영암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도 안내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군, 내달 3일부터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영암군은 오는 7월 3일부터 군에 등록된 차량들은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전환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영암군의 경우, 차량소유자는 기존에 자동차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었으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되며 검사비용도 상승한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 이후인 모든 자동차가 해당된다. 다만, 전기차 · 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료일이 올해 7월 3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인 경우, 7월 2일까지 검사를 받을 경우 정기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벼 건조저장시설 공모사업 선정

총 사업비 19억원 확보

건조저장 1만6천톤까지

장흥군은 농식품부 주관 '2021년 벼 건조저장시설 공모사업'에 천관농협이 선정돼 총사업비 19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흥군의 산물벼 건조저장 처리 능력은 약 1만톤으로, 연간 벼 생산량 4만7000톤 대비 21% 정도만 소화가 가능해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흥군은 향후 2년 이내 벼 건조저장능력을 1만6000톤까지 확충해 벼 생산물량의 35%까지 산물벼로 매입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흥군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월 천관농협에 대한 현장평가에서는 정종순 군수가 직접 참석해 농식품부 평가위원들에게 지역 여건과 사업의 절실함을 피력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국비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 농업인과 농협, 행정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농업 구조 변화와 장흥 쌀 품질 고급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